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2. 01. ~ 02. 14.

전남농업정보

71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배 설 성수기 출하 속도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쌀,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르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사과·배 보급 나선다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 과수원 경영 10년차 역대부농 일군 청년농사꾼

· 청년농부 팜핑으로 가치창조 농업실현

정책동향

· 농식품부,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확정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6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0~2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재배지 관리정보 9

- ▶ 겨울철 밀과 보리 재배지 관리는 이렇게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11

- ▶ 배 설 성수기 출하 속보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15

- ▶ 도·소매 농산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9

- ▶ 이지사, 에콰도르와 농업분야 협력 논의
- ▶ 여수시, 친환경 유용 미생물 (EM) 공급 ... 높은 호응
- ▶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 효자 노릇 특특
- ▶ 보성군, 밭기반 정비사업 총력 추진
- ▶ 무안군, 양파 육묘·정식까지 완전 기계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4

- ▶ 우리 쌀,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르다
- ▶ 우리 품종으로 로열티도 받고 연중 수출체계 갖춘다
- ▶ 장흥 표고버섯 군사배양미,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다!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31

- ▶ 꼭! 알아야 할 『벼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 ▶ 아열대 채소 “열대(인디언) 시금치” 겨울철에도 수확이 한창
- ▶ 겨울 사료작물 언 땅 녹으면 눌러, 생산량 15% 이상 늘어
- ▶ 국산 양송이 품종 우수성 인정받아, 보급률 상승세
- ▶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사과·배 보급 나선다

❁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39

- ▶ 과수원 경영 10년차 역대부농 일군 청년농사꾼
- ▶ 청년농부 팜핑으로 가치창조 농업실현
- ▶ 지역의 취업시책을 활용하면 길이 보인다. 수도권이 좋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 정책 동향 44

- ▶ 농식품부,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확정
- ▶ 벼 재배면적 3만ha 줄여 쌀 수급안정 피해
- ▶ aT가 청년창업의 “꽃”을 피워드립니다
- ▶ 전남도 폭설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
- ▶ 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 해외 농업정보 52

- ▶ 네덜란드, 낙농조합 우유생산 쿼터 유지 농가에 장려금 지원
- ▶ 브라질, 비싼 외식 대신 요리재료 세트로 가정 조리 인기
- ▶ 미국·뉴욕,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 꾸준히 증가 중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2. 0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염가 매입세로 상승 마감함.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하락한 가격에 매입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취소되며 3주째 최저가격을 기록하였으나, 월말 염가 매입세가 몰리며 회복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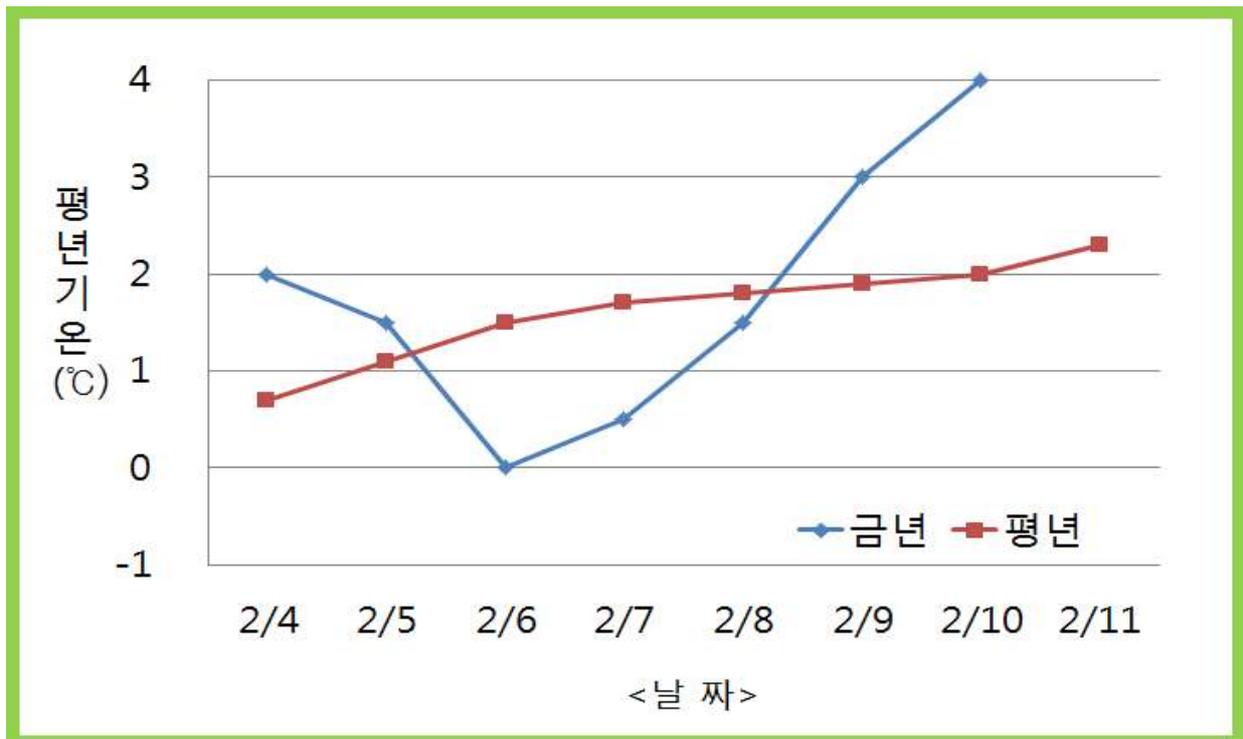
- ▶ 전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 ▶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하세요
- ▶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 올해 파종할 콩 보급종 신청하세요
- ▶ 스마트폰으로 농업 새 기술을 배워보자

※ 다음 주 농업정보는 설 연휴로 인하여 휴간 합니다 !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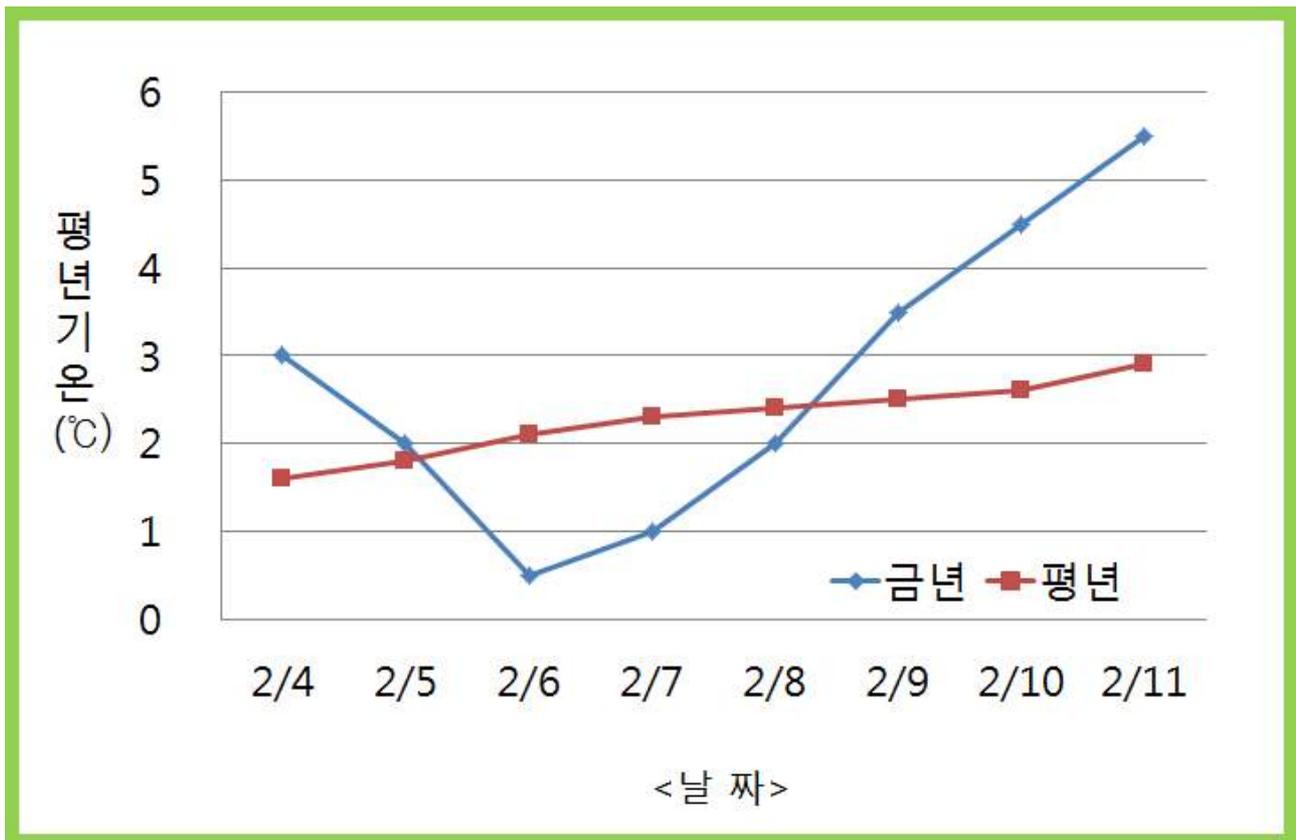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	1.6	0.6	6.0	6.8	-0.8	-1.6	-2.6	0.9	1.2
2. 04.(목)	2.0	0.7	1.3	7.0	5.8	1.2	-3.0	-3.5	0.5	0.6
2. 05.(금)	1.5	1.1	0.4	5.0	6.4	-1.4	-2.0	-3.2	1.2	0.4
2. 06.(토)	0.0	1.5	-1.5	3.0	6.8	-3.8	-3.0	-2.8	-0.2	0.7
2. 07.(일)	0.5	1.7	-1.2	4.0	7.0	-3.0	-3.0	-2.5	-0.5	1.0
2. 08.(월)	1.5	1.8	-0.3	5.0	7.0	-2.0	-2.0	-2.3	0.3	1.2
2. 09.(화)	3.0	1.9	1.1	7.0	7.0	0.0	-1.0	-2.1	1.1	1.7
2. 10.(수)	4.0	2.0	2.0	8.0	7.0	1.0	0.0	-2.0	2.0	1.9
2. 11.(목)	5.0	2.3	2.7	9.0	7.5	1.5	1.0	-2.0	3.0	2.0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	2.3	0.5	6.0	6.9	-0.9	-0.5	-1.2	0.7	1.0
2. 04.(목)	3.0	1.6	1.4	7.0	6.4	0.6	-1.0	-2.0	1.0	0.6
2. 05.(금)	2.0	1.8	0.2	5.0	6.7	-1.7	-1.0	-1.7	0.7	0.5
2. 06.(토)	0.5	2.1	-1.6	3.0	7.1	-4.1	-2.0	-1.4	-0.6	0.7
2. 07.(일)	1.0	2.3	-1.3	4.0	5.8	-1.8	-2.0	-1.1	-0.9	0.9
2. 08.(월)	2.0	2.4	-0.4	5.0	7.2	-2.2	-1.0	-0.9	-0.1	1.1
2. 09.(화)	3.5	2.5	1.0	7.0	7.2	-0.2	0.0	-0.9	0.9	1.4
2. 10.(수)	4.5	2.6	1.9	8.0	7.3	0.7	1.0	-0.8	1.8	1.5
2. 11.(목)	5.5	2.9	2.6	9.0	7.7	1.3	2.0	-0.8	2.8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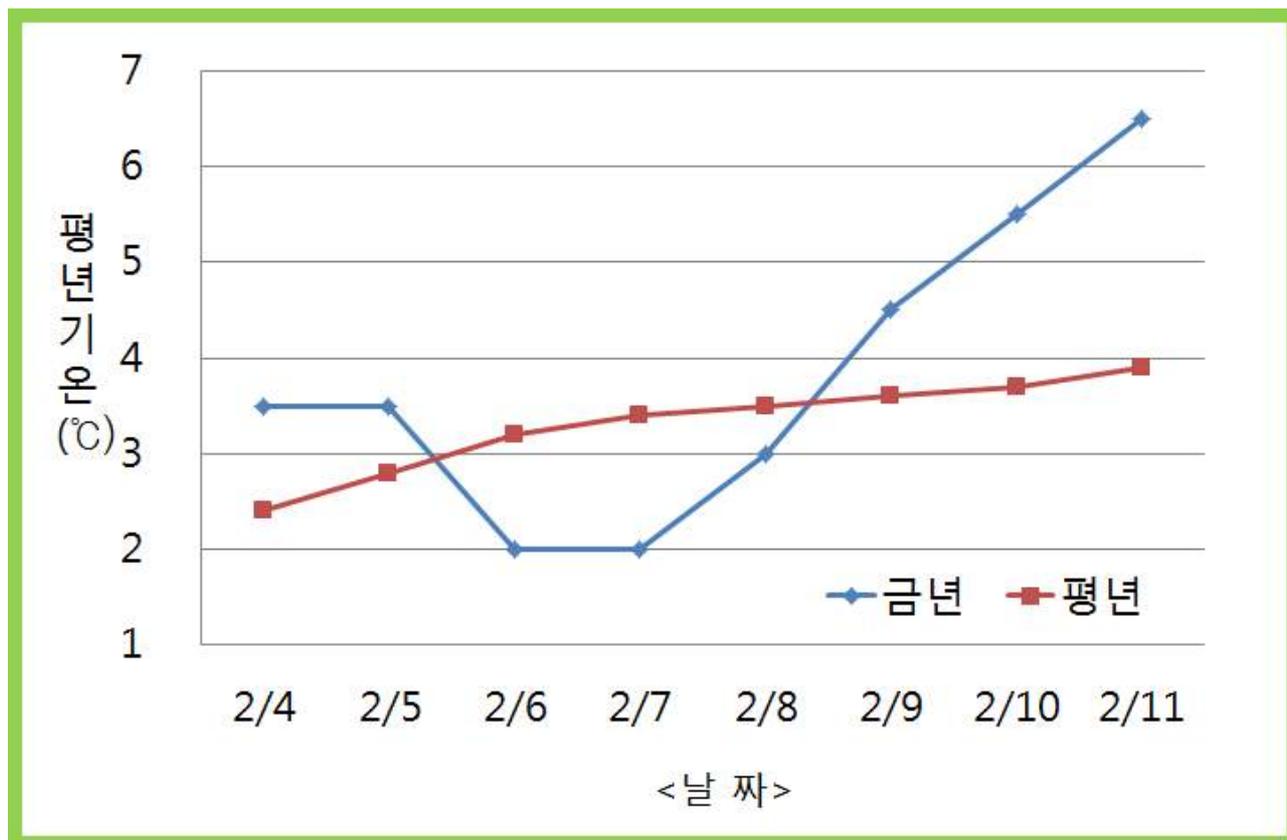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8	3.3	0.5	7.0	7.6	-0.6	0.6	-0.1	0.7	0.8
2. 04.(목)	3.5	2.4	1.1	7.0	6.7	0.3	0.0	-1.0	1.0	0.3
2. 05.(금)	3.5	2.8	0.7	6.0	7.1	-1.1	1.0	-0.6	1.6	0.2
2. 06.(토)	2.0	3.2	-1.2	5.0	7.4	-2.4	-1.0	-0.2	-0.8	0.5
2. 07.(일)	2.0	3.4	-1.4	5.0	7.7	-2.7	-1.0	0.1	-1.1	0.6
2. 08.(월)	3.0	3.5	-0.5	6.0	7.7	-1.7	0.0	0.2	-0.2	0.9
2. 09.(화)	4.5	3.6	0.9	8.0	7.9	0.1	1.0	0.2	0.8	1.2
2. 10.(수)	5.5	3.7	1.8	9.0	7.9	1.1	2.0	0.3	1.7	1.3
2. 11.(목)	6.5	3.9	2.6	10.0	8.3	1.7	3.0	0.4	2.6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재배지 관리정보

겨울철 밀과 보리 재배지 관리는 이렇게

- 웃자람·서리 발생지는 밟아주고 생육 재생기엔 웃거름 주면 도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웃자라고 잎이 연약해진 밀과 보리가 갑작스러운 한파에 잘 자라지 못할 수 있다며 맥류 재배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올해 겨울(11월 상순~1월 중순)은 평년보다 기온이 2.8℃(평년 3.8℃) 높았고, 11월 상순과 중순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맥류의 웃자람이 나타났다. 게다가 1월 중순 이후 급격히 추워지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 한파와 폭설 이후에는 언 땅과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토양 내 수분이 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 습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은 배수를 철저히 해서 뿌리 활력을 좋게 해줘야 한다. 요소 2%액(물 20L에 요소 400g)을 10아르 당 100L씩 2~3회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이후 맥류가 웃자란 지역이나 서리가 내린 곳은 밟아주기를 하여 뒤집힌 밭아묘의 자리를 잡아주면 수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진압기나 트랙터를 이용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웃자람이 심한 포장은 흙넣기와 밟아주기를 함께 해주면 효과가 더 크다.
- 밟아주기는 이슬이 마른 후에 토양이 질지 않을 때 해야 하며, 마디 성장이 시작된 뒤(3월 상순)에 밟으면 어린 이삭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맥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 재생기에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 생육 재생기는 지상 1cm 부위의 잎을 자른 후 잎이 1cm 이상 다시 자랐거나,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하루 평균 기온이 0℃ 이상으로 3~4일 동안 지속될 때를 말하며, 보통은 2월 중·하순경이다.
- 웃거름은 요소를 10아르 당 4~5kg을 1차에 주고 20일 후 2차에 나눠 주는 것이 다수확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할 때는 생육 재생기 이후 15~20일 사이에 한 번 준 뒤 토양과 품종·생육 특성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 또한, 냉이 같은 넓은 잎 잡초가 많이 발생한 포장에는 베타존 액제를 3월 상순(잡초 3~5엽기)에 10아르 당 300ml를 뿌리고, 독새풀 등 화분과잡초(벚과잡초)가 많은 지역은 치벤설페론메칠수화제(하모니) 7g을 2월 중순경(독새풀 3엽기)에 뿌려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 작물과 권영업 과장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밀·보리·귀리 등 맥류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의 포장 관리가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번 겨울은 기온이 높았던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겨울나기 후 맥류 생육 재생기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배 설 성수기 출하 속보

□ 설 성수기 배 출하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 설 성수기 (설 전 2주간, 1. 24. ~ 2. 6.) 배 출하량은 2015년산 저장량 감소로 전년 성수기보다 7% 적은 4만 7천톤 내외로 전망
 -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특 · 상품 물량은 저장배의 품위가 낮아 부족

<배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출하 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8~12월	1월		2월		3월 이후
			이중 설 성수기			
2015년산	144.9	44.1	47.1	24.2	31.1	
2014년산	164.2	21.3	50.6	62.1	37.8	
증 감 률	-11.7	106.9	-6.8	-60.9	-17.7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월 전체 배 출하량은 설 수요가 2월(15. 2. 4. ~ 2. 17.)에 집중되었던 전년보다 61%, 3월 이후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설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설 성수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 (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3만 2천원)보다 높은 상품 15kg에 3만 5천 ~ 3만 8천원으로 전망

- 선물용 소비가 많고 대과 중심인 7.5kg 상자의 평균 도매가격은 특·상품 물량 부족으로 15kg보다 가격 상승폭이 전년보다 더 큰 2만 8천 ~ 3만원으로 예상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신고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 (상품)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평 년
7.5kg	28,000~ 30,000	21,770	28,789	35,742	28,954	32,596	30,113
15kg	35,000~ 38,000	32,466	39,524	58,721	41,735	40,767	40,675

주 : 평년은 2011~15년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2. 0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01)	1주일전 (01/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400	42,280	↓ 12.6	↓ 14.4
	콩(백태)	35kg	149,000	149,000	148,400	140,000	183,867	↑ 6.4	↓ 19.0
	고구마(밤)	10kg	28,400	25,200	22,600	22,250	25,963	↑ 27.6	↑ 9.4
	감자(수미)	20kg	31,200	29,400	26,000	26,300	28,140	↑ 18.6	↑ 10.9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10	690	-	385	663	↑ 84.4	↑ 7.1
	양배추	10kg	7,900	6,700	4,000	5,100	7,500	↑ 54.9	↑ 5.3
	오이(다다기계통)	10kg	47,333	35,667	35,083	46,889	44,320	↑ 0.9	↑ 6.8
	애호박	8kg	40,000	36,800	24,450	35,500	31,950	↑ 12.7	↑ 25.2
	토마토	10kg	32,600	30,800	22,800	30,550	33,917	↑ 6.7	↓ 3.9
	당근	20kg	25,400	24,200	24,550	16,500	23,467	↑ 53.9	↑ 8.2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7,5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76,000	57,200	37,800	87,850	79,957	↓ 13.5	↓ 4.9
	마늘(깐마늘)	20kg	158,000	151,000	143,500	99,200	111,667	↑ 59.3	↑ 41.5
	양파	20kg	33,400	33,200	33,950	10,450	17,990	↑ 219.6	↑ 85.7
	대파	1kg	3,400	2,670	2,035	1,250	1,602	↑ 172.0	↑ 112.2
	파프리카	5kg	53,400	59,200	25,600	31,700	35,917	↑ 68.5	↑ 48.7
	멜론	8kg	26,800	28,600	28,350	38,000	44,962	↓ 29.5	↓ 40.4
	방울토마토	5kg	24,000	23,000	15,850	20,300	22,597	↑ 18.2	↑ 6.2
수박	1개	22,200	21,600	21,100	19,950	16,997	↑ 11.3	↑ 30.6	
과 열 류	사과(후지)	10kg	37,800	36,200	35,600	38,734	55,342	↓ 2.4	↓ 31.7
	배(신고)	15kg	47,800	44,200	43,700	35,900	47,733	↑ 33.1	↑ 0.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01)	1주일전 (01/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5,000	563,333	↑ 0.8	↓ 6.1
	느타리버섯	2kg	15,000	12,000	11,200	12,650	13,913	↑ 18.6	↑ 7.8
	새송이버섯	2kg	10,200	8,400	8,000	7,800	9,903	↑ 30.8	↑ 3.0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99	7,881	7,898	6,694	6,504	↑ 21.0	↑ 24.5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81	1,845	1,810	1,726	1,765	↑ 9.0	↑ 6.6
	닭고기	1kg	5,178	5,219	5,694	5,188	5,327	↓ 0.2	↓ 2.8
	계란(특란)	30개	5,406	5,536	5,389	5,938	5,838	↓ 9.0	↓ 7.4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8	2,368	- 0.0	↑ 7.6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 소매, 채소류/시금치, 2016-01-29, 부산

- 경남 김해·남해·경북 포항 등지에서 주로 출하됨
- 그동안 계속된 한파로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전일부터 내리는 우천의 영향으로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kg에 상품 5,000원, 중품 4,5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명절 나물 수요 증가로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오이(다다기계통), 2016-01-29, 대전

- 대전광역시·충남 논산·공주·전북 익산 등지에서 주로 반입됨
- 설 명절에 따른 소비량 증가로 전반적인 오름세
- 도매가격은 다다기는 10kg 기준 4,000원 올라 상품 40,000원, 중품 35,000원에 취청은 상품은 37,000원, 중품은 32,000원 거래됨
- 향후에도 소비량 증가로 당분간 고가에 거래될 전망이다

□ 도매, 채소류/무(월동), 2016-01-29, 부산

- 제주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지난주 산지 한파와 폭설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설 명절 소비와 함께 개학을 앞두고 급식 수요 증가로 오름세
- 도매가격은 20kg당 상품 17,000원 중품 15,000원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명절 준비와 개학에 따른 소비 증가로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풋고추, 2016-01-29, 대구

- 경남 창녕·밀양·함안지역에서 출하됨
- 동절기 국거리용 부재료로 가정용 소비는 꾸준한 가운데, 최근 기온하강 등 생육여건 악화로 산지출하가 원활치 못해 오름세에 거래됨
- 소매가격은 100g 기준 100원 오른 상품 1,000원 중품은 9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겨울철 냉해 등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고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풋고추(파리고추), 2016-01-29, 광주

- 경남 진주에서 출하됨.
- 연일 이어지고 있는 흐린 날씨로 출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급식용 납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보합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00g에 100원 오른 상품 1,100원 중품 1,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흐린날씨가 예보됨에 따라 주산지의 생육상태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공급물량 감소로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마늘(간마늘), 2016-01-29, 서울

- 충남 서천·전남 무안·경북 영천·경남 남해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출하지역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수요는 작년보다 못하지만 저장업체의 출하조절로 오름세로 거래됨
- 재래시장의 소매가격은 1kg 기준 500원 오른 상품 10,000원 중품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음
- 주중 요식업소 소비수요 감소에 따라 약보합세 예상

□ 도매, 채소류/파(대파), 2016-01-29, 대구

- 경북 성주·군위·대구지역에서 출하됨
- 눈이 내리면서 산지 작업 중단 및 시중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kg 기준 500원 오른 상품 3,500원 중품은 3,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일기변화의 영향으로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피망(청), 2016-01-29, 부산

- 경남 진주·함양·밀양 등지에서 주로 출하됨
- 겨울철 생육부진 및 시설채소의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출하가 원활하지 못하여 오름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00g에 1,200원 중품 1,000원에 거래됨
- 향후에는 명절준비로 인한 소비량 증가로 당분간 강보합세 전망

□ 도매, 특용작물/새송이버섯, 2016-01-29, 서울

- 경기 이천·경북 상주·김천·문경·충남 천안 등지에서 반입됨
- 설 명절로 인해 시장 내 고객이 증가한 가운데 반입량은 전일보다 감소 하였으나 거래처 등 일반 소비수요 증가로 오름세로 거래됨
- 도매가격은 2kg 기준 1,000원 오른 상품 11,000원, 중품 9,000원에 거래됨
- 향후 산지출하작업이 꾸준할 것으로 판단 당분간 보합세 전망



□ 도매, 과일류/배(신고), 2016-01-29, 서울

- 경기 화성·평택·안성·여주·이천 등지에서 반입됨
-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용 대과 물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오늘 반입량이 어제보다 29톤이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5kg 기준 4,000원 오른 45,000~5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음
- 주중 설 명절을 앞두고 대과 선물용 소비수요 증가로 인해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방울토마토(국산), 2016-01-29, 광주

- 광주광역시·전남 장성·담양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주산지 폭설여파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출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건강식 및 후식용 수요는 꾸준하여 강보합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kg에 500원 오른 상품 6,000원 중품 5,500원 선에 거래됨
- 일기불순에 따른 주산지의 생산량이 적어 당분간 강보합세 전망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이 지사, 에콰도르와 농업분야 협력 논의

- 27일 집무실서 오스카 에레라 대사 면담...“상호 보완관계 협력”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집무실에서 지난해 2월 부임한 주한 에콰도르 오스카 에레라 대사와 면담을 갖고 전남도·에콰도르 간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 자리에서 오스카 에레라 대사는 “전남은 뛰어난 농업기술을 보유한 지역으로 양 지역 간 농업인 교류를 통해 기술 전수를 희망한다”며 “MOU 체결을 통해 교류사업을 구체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촌진흥청의 사업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남에는 농업기술원이라는 농업 전문기관이 있으며 에콰도르의 젊은 농업인이 연수를 희망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다만 농어촌공사 등의 자금 활용 여부 등은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 또한 “한·에콰도르 간 추진 중인 FTA 전 단계인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양 지역 농업은 상호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이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한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공사가 에콰도르에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남과 에콰도르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여수시, 친환경 유용미생물(EM) 공급...높은 호응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유용미생물(EM)의 연중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와 축사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유용미생물(EM) 배양원액 53톤을 생산·공급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용미생물은 연등천 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 행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 공급되는 유용미생물 종류로는 각종 악취와 유해가스를 저감해 주는 광합성균,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주는 고초균, 뿌리발근 촉진 및 병원균을 억제하는 유산균, 토양개량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모균 등 총 4종이다.
- 시는 사용 편리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2, 4, 5, 10ℓ 단위로 무균 소포장하여 4℃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농가는 무상으로, 여수시 일반농가와 시민은 리터당 300원, 타 지역 주민은 리터당 1,000원에 공급한다.
- 유용미생물(EM) 배양원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시민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급 받으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은 농업, 축산,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효과가 커 농업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유용미생물 생산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 효자 노릇 특특

- 고흥군(군수 박병중)이 올해로 6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농촌 일손 부족과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이용 농가가 20% 이상 증가해 올해는 총 1,788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이다.
- 농가에서는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인력 소요를 줄여 중소 단위 농가 경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중인 농기계는 농용굴삭기, 관리기,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등 69종이며 총 33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인 수요가 많은 농기계 83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굴삭기 등 조작성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운반이 어려운 대형 임대농기계는 영농현장까지 직접 수송해주는 등 더 많은 농업인이 쉽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기계 임대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사전 예약한 후, 1회당 3일 이내의 기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830-584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 보성군, 밭기반 정비사업 총력 추진

- 밭기반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농업소득 극대화 -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대외 경쟁력 확보와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80억원을 투입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다.
-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과수·화훼 등 주산단지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미력 화방 지구, 복내 동교 지구, 조성 은곡 지구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올해 말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별교 마동 지구, 읍어 이동 지구는 다음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약 271ha 면적의 밭에 농로개설, 용·배수로 정비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은 물론 농업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무안군, 양파 육묘·정식까지 완전 기계화 추진

- 올해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450ha 목표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월 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은 농촌 노동력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 작업 기계화를 위한 것으로 양파 재배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무안군은 올해 양파 기계화 단지조성 사업으로 450ha 면적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 김철주 무안군수는 “기회와 희망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다. 양파 기계화에 농민이 함께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기계화 정착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군은 2020년까지 양파 재배면적의 70%이상을 기계로 심고 수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파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양파 주산지로서의 무안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무안군농업기술센터

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쌀,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르다

- 추청·오대·삼광·신동진 등 친숙한 품종의 국산 쌀 30톤이 중국으로의 첫 수출길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금), 전북에 위치한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우리 쌀의 대중국 첫 수출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6년간 끌어오던 대중국 쌀 수출 협상(수입위험분석 착수요청)이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박대통령의 요청을 계기로 쌀의 수입위험분석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전되어 지난 1월 13일, 중국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6개소)을 최종 공고함에 따라 우리 쌀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 농식품부는 중국의 수출용 쌀 가공공장 공고 즉시 쌀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지자체, 쌀 가공공장, 무역업체(대우인터내셔널), 유통업체(롯데마트) 등과 대중국 쌀 수출추진 TF를 운영해 왔다.
- 이를 통해 공동 포장지 결정, 품질위생검사, 훈증소독 등 수출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함으로써, 공고 후 2주 만에 우리 쌀의 첫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 이번에 첫 수출되는 쌀 30톤은 시장테스트 차원에서 다양한 품종과 포장 단위로 구성되었고, 한국산 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6개 업체가 공통 디자인을 활용한다.
- 품종은 추청·오대·삼광·신동진·보광·새일미 등 6가지이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단위(2, 5, 10kg)로 소포장 되었다.

- 공통 디자인으로는 태극무늬를 활용하여 한국산 쌀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쌀의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브랜드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 첫 합동 수출자는 NH무역, 수입자는 심천시흥태상진출구 유한공사로, 수출된 쌀은 선적수출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초 군산항을 출항, 중순경 상해항(외고교)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거친다.
- 통관된 쌀은 중국 상해에 위치한 롯데마트 전점 75개소 중 규모가 작은 매장을 제외한 69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2월 말~3월 초경 중국 현지에서 한국쌀 판촉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대중국 쌀 수출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규모가 큰 중국 시장에서 우리 쌀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 그간 수입쌀 TRQ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온 중국과의 쌀 교역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에 우리 쌀 2천톤 가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중국 도시별 소비자 선호 조사(식미품종포장 등)를 추진 중이며,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조성 및 홍보관측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대중국 쌀 수출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쌀 수입권한(쿼터)을 확보한 중국 쌀 전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매칭 상담회 개최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 중국 백화점(연태시 따웨이청 한국관), 온라인 몰(알리바바 등), 현지 TV 홈쇼핑(CJ) 등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K-Food Fair 안테나숍 등을 활용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 또한,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경에는 약 70톤 가량의 쌀을 대우 인터내셔널과 중국 국영식품기업인 COFCO(중량)를 통해 2차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날,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합동 수출에 적극 협조한 가공 업체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쌀 시장 확보가 우리 쌀 수출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쌀이 중국에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 쌀끼리 경쟁하기 보다는 타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미국·호주 등 46개국으로 2,238톤(약 5,154천불)의 쌀을 수출한 바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 품종으로 로열티도 받고 연중 수출체계 갖춘다

- 국산 품종으로 3년간 로열티 55억 절감...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국화 ‘백마’, 참다래 ‘제시골드’와 ‘한라골드’ 등의 품종으로 로열티도 받고, 우리 품종의 농산물을 연중 수출한다.



제시골드



한라골드



백마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0년부터 5년간 로열티 경감과 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종 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 로열티 부담이 큰 딸기 등 6개 품목에서 291품종을 개발해 로열티 지불액을 2012년 176억에서 2015년 121억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뤘다.
- 또한 국산 품종의 수출기술 보급으로, 2015년에 딸기 ‘매향’을 홍콩 등으로 3천 3백톤, 국화 ‘백마’ 절화를 일본으로 200만 송이, 참다래 ‘제시골드’ 과일을 홍콩 등에 52톤 수출했다.
- 특히, 농촌진흥청은 국내 수출 농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화 품종 ‘백마’의 국내 생산 물량이 없는 시기에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겨울철을 중심으로 생산해 일본에 연중 수출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본에서는 연간 수천만 송이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름 외에는 수출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말 국외(중국) 전용실시권을 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 올해 중국 시범재배를 거쳐 점차 생산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며, 5년 후에는 약 48헥타르(1,800만 주)로 생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기에 국내 수출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 생산 품종은 국내로는 절대 들여올 수 없는 조건이며, 일본 수출도 10~5월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참다래 ‘제시골드(2002년 개발)’와 ‘한라골드(2007년 개발)’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한 묘목이 성목(나무가 다 자람)이 될 때 연 5억원씩, 20년간 총 100억원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산 참다래 품종 보급률도 해마다 늘어 2006년 2.0%에서 2015년 21.7%까지 늘었으며, 2017년 23%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로 인한 로열티 절감액은 2010년 0.9억원에서 2015년 11.2억원, 2017년 이후에는 13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국산품종 대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로열티 기반 확보와 국내 육성품종의 불법유출에 대비해 딸기·국화 등 우수 품종에 대해 국외 품종보호출원과 적응성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일본 등 7개 나라에 국화·장미 등 116품종을 출원해 61품종을 등록했으며, 2009년 이후 딸기·참다래 등 13개 나라에 10작목 66품종에 대해 국외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화훼 및 특용작물 품종경쟁력 향상’, ‘신품종 이용촉진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국산품종을 개발해 로열티를 받는 품종 수출 선진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종자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써 국산 종자의 자급률 향상은 물론, 종자 수출 확대로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장흥 표고버섯 군사배양미,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다!

- 장흥군 표고버섯에 이어 군사배양미로 만든 쌀과자가 해외 수출길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 (주)미리얼(대표 김학선)은 지난해 12월 중국 식품유통회사 빅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표고버섯 군사배양미 쌀과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수출물량을 선적했다.
- 중국 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쌀과자에 좋은 반응을 보이자 최근에는 김치 쌀과자·강황 쌀과자·흑마늘 쌀과자 등의 추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 중국에 이어 폴란드·인도네시아·홍콩의 바이어도 장흥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출 관련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표고버섯 군사배양미로 만든 쌀과자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이승주)이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장흥표고산업육성사업단(단장 서은수)에서 시제품 생산 지원을 맡아 이룬 성과다.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청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미리얼과 공동으로 표고버섯 가공제품 연구개발에 돌입, 장흥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쌀에 표고버섯 군사체를 배양하여 유용성 분과 기능성을 높인 고부가가치 웰빙 쌀과자 개발에 성공했다.
- 장흥표고산업육성사업단은 다양한 판로 모색 및 수출 개척을 위해 제품 홍보와 시제품 생산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주)미리얼 김학선 대표는 “업체 입장에서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판로 개척에 제약이 많았으나,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으로 제품개발과 수출이 이루어 졌다”며, “앞으로도 장흥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물량과 수출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장흥군버섯산연구원 관계자는 “표고버섯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표고버섯 가공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장흥 표고버섯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1차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은 물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농가와 산업체에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8.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꼭! 알아야 할 『벼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벼 유기재배 기술 책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생명식품산업 육성 목표 달성 및 유기재배 내실화를 위해 벼 유기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꼭 알아야할 벼 유기재배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시군 농업기술 센터와 유관기관, 그리고 친환경재배 농업인들에게 1,000부를 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벼 유기재배 종합관리기술 매뉴얼’ 책자는 2010년에 발간한 벼 유기재배 기술을 보완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구한 유기재배 생산비 절감 종합관리기술을 수록하였고, 농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유기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 이번 책자에서는 품종선정 및 종자소독관리부터 수확관리까지 벼 재배기간 동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고, 벼를 튼튼하게 키워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육묘방법·물관리·토양 및 재배관리 등을 중점으로 다루었고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자재 이용 기술은 물론 병해충·잡초 방제 등 실천 가능한 기술들을 사진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유기재배를 실천하는 데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 가능한 자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절차를 수록하여 농업인들이 벼 유기재배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정립하고 유기재배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안규남 연구사는 앞으로도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벼 유기재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농업인 교육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유기농 생태 전남실현을 위한 벼 유기재배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열대 채소 “열대(인디언) 시금치” 겨울철에도 수확이 한창

- 난방비 부담 없이 10a당 800만원의 농가 수입이 가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는 아열대 채소인 열대 시금치를 우리지역에서 한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여 성공했다고 밝혔다.
- 겨울철에도 기온이 따뜻한 해남에서 2중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땅속에 전기전열선으로 가온을 하고 지상부는 부직포를 설치한 3중 형태의 비닐하우스에 작년 10월 중순 열대 시금치를 심어 11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 하순까지 타도에서는 난방을 하지 않고는 생산할 수 없는 시기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 이렇게 겨울 월동기 동안 지중전열선 가온과 부직포를 이용한 온도관리 기술은 한 겨울에도 하우스 내 기온을 최저 6℃ 이상을 유지함은 물론 땅속의 지온을 최저 8℃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10a 수확량을 4월까지 3톤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의 거래가격은 봄 재배의 kg당 2,000~2,500원 보다 2배가 높은 4,000~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2중 비닐하우스에 부직포 피복과 지중 가온방법에 의한 온도관리 기술은 농가생산 현장에서 재배농가와 공동으로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술로 열대 시금치를 가을에 심어 한겨울부터 봄철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단경기에 농가가 10a당 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2기작 연중 안정생산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앞으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열대 시금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2년생 채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추위로 인하여 주로 1년생 채소로 봄에 심어 가을까지 수확하는 작물로 알려지고 있다
- 특히 열대 시금치에는 일반 시금치보다 칼슘이 45배, 비타민 A와 철분도 8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일본 식품분석센터의 분석결과가 알려지면서 건강·기능성 채소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은 경기도 안산이나, 부산·김해 공단지역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나 외국인 전용식당에서 살짝 데친 후 나물이나 국거리 또는 기름과 잘 어울려 튀김, 볶음 요리에 소비되고 있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 손동모 원예연구팀장은 이번에 개발된 “열대 시금치 겨울철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겨울 사료작물 언 땅 녹으면 눌러주세요

- 들뜸 예방하고 잘 자라... 생산량 15% 이상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겨울 사료작물의 생육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눌러주기과 웃거름주기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비교적 높은 온도로 인해 웃자람이 발견된 작물의 경우, 갑작스러운 추위에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료작물 밑동이 솟구쳐 오르는 들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 뿌리가 들뜨는 것을 막고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겨울나기 후에는 반드시 눌러주기를 실시해야 한다.
- 눌러주기만 잘해도 생산량을 15% 이상 높일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IRG)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땅 표면에 넓게 퍼져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한다.
- 제때 웃거름을 주면 초기부터 잘 자라기 때문에 잡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삭 당 알곡 수도 늘어 생산량도 증가하고 사료작물의 질도 좋아진다.
- 겨우내 자라지 못했던 사료작물이 왕성히 자라는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는 웃거름을 줘야 한다.
- 거름은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IRG)는 1ha 당 요소비료 220kg, 청보리와 호밀은 1ha 당 요소비료 120kg 정도가 알맞다. 가을에 퇴비를 많이 줬거나 봄에 분뇨를 뿌릴 경우 그만큼 양을 줄인다.
- 이른 봄에는 잦은 비로 습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미리 정비한다.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난 뒤 눌러주기과 거름주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지난가을 잦은 비로 제때 파종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봄에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IRG)·청보리·호밀·귀리 등을 파종해 부족한 풀사료를 확보하는 데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양송이 품종 우수성 인정받아, 보급률 상승세

- 보급 확대 위해 27일 양송이 종균업체 협의회 -

- 국산 양송이 품종의 우수성을 재배 농가로부터 인정받으며 국산 품종 보급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해 국산 양송이 품종 보급률이 37%로, 2010년 4%에 비해 9배 늘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부터 육성한 양송이 새도·새한·호감 3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경주·대구·보령 지역의 100여 농가에서 농가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 외국 품종과 국내 육성 품종과의 비교 시험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접 국내 품종의 우수성을 확인한 것이 보급 확대에 이어졌다.
- 특히, ‘새도’ 품종은 국내 육성 품종 중 보급률 55%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에서 인기가 많아 올해도 많은 보급이 예상된다. 버섯의 형태가 우수하고 버섯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 품종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껌질째 먹는 중간 크기 사과·배 보급 나선다

- 사과 '아리수' 등 내년 시중 유통... '황금배'는 해외서 인기 -

- 농촌진흥청이 껌질째 먹을 수 있는 중간 크기의 사과·배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제례 문화의 영향으로 큰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큰 과일보다 중간 크기의 과일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 사과와 배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사과는 큰 것(300g)보다는 중간 크기(250g)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도 일상 소비용으로는 큰 과일(700g)보다는 중간 크기(500g) 이하를 선호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크기는 작아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 본격 보급에 나서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중간 크기의 사과는 6품종으로, 높은 기온에도 색깔이 잘 드는 '아리수', 테니스공 크기인 빨간색의 '피크닉', 황녹색의 '황옥', 여름 사과 '썸머드림', 탁구공 크기만큼 작은 '루비-에스', 수분수 겸용 장식용 사과 '데코벨'이 있다.
- 이 품종들은 껌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나들이용으로 좋으며 기내식, 군납, 단체급식용으로도 알맞다.
- 이 사과 품종들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품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후지' 품종과 당도가 비슷해 맛도 좋다.

- 또, 중간 크기의 배는 7품종으로, 껍질을 깎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황금배·한아름·스위트스킨, 당도가 높은 ‘조이스킨’, 인공 수분이 필요 없는 ‘스위트코스트’, 매력적인 모양과 식미의 ‘소원’과 ‘솔미’가 있다.
- 특히, ‘황금배’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껍질이 선황색으로 얇고 투명해 잘 익은 열매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울산과 안성에서 늦여름에 수확하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 개발한 중간 크기의 배 품종은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고’ 품종에 비해 당도(‘신고’ 11~12°Bx, 중소과 12~14°Bx)가 높고 아삭해 식미가 우수한 특징이 있다.
- 이들 품종 중 사과 ‘아리수’는 53개 업체에 통상 실시돼 지난해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되고 있다.
- 현재 1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생산 계약한 묘목을 포함하면 500ha 정도 재배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에는 내년부터 유통된다.
- 사과 ‘피크닉’과 ‘황옥’ 품종도 통상 실시해 올해 봄부터 농가로 묘목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15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루비에스’ 품종은 통상 실시를 준비 중이며, 내년 가을부터 농가에서 묘목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 ‘황금배’는 320ha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4대 주품종으로 미국·대만·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수출할 만큼 해외에서 사랑받는 품종이다.



- ‘한아름’도 2007년 통상실시 후 전국에서 100ha 내외로 재배하고 있다. ‘스위트스킨’·‘조이스킨’은 2013년에 통상 실시해 묘목이 내년 봄부터 농가에 보급된다.
- 이러한 품종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중간 크기 과일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알맞다.
- 또한, 신선편이 가공이 쉬운 품종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진청은 이들 사과와 배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해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식용이나 나들이용, 학교 급식용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작고 경제적인 과일을 연중 공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은 “국산 사과와 배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보다 생산비는 낮추고 맛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한 작은 과일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중소형 과일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청년창업, 취업 성공사례

■ 과수원 경영 10년차 역대부농 일군 청년농사꾼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체험농장 운영으로 고객감동 마케팅 실천 -

- 청정고을 곡성에서 체험농장으로 돈 버는 젊은 농촌사업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벌써 10년 넘게 과수원 운영으로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샐터농장’ 김요순 대표다.
- 한국농수산대를 졸업한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어 김대표에게 최대 난관은 경영방식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농촌은 고령화되어 노동력 확보가 갈수록 어렵고, 이상기온으로 고품질 과수생산 등 농업의 제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김대표의 기존 경영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의 도움이 컸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마케팅 교육을 1년 동안 받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마인드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교육 전에는 생과 판매 위주였는데 교육을 통해서 체험농장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다”는 김 대표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 뿐 만 아니라 조그마한 개인 텃밭까지 분양했다. 김 대표는 체험을 위해 농장을 찾은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 공간도 조성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 김 대표의 고객감동 마케팅 포인트는 배려와 책임감이다. 김 대표는 텃밭운영에 필요한 모종이나 종자는 고객이 직접 가져오거나 농장에 비치된 종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양된 과수와 텃밭에 충분한 유기물 퇴비와 영양제를 살포하여 재배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적 조건을 조성해 주는 등 분양에만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
- 여기에 김대표는 체험객과 핵가족 소비자를 위해 2012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3개들이 소포장 과일세트와 배+사과 혼합상품 그리고 고객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또한 판매촉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페이스북·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농장의 일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SNS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런 김대표의 노력에 힘입어 체험농장이 입소문이 나고, 우수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16% 증가 하였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성장 비결에 대해 “농산물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팔겠다는 스스로의 약속과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최고라는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고객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 때문에 김 대표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사과잼·사과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생각이다. 또 지속적인 체험고객 확보를 위해 분양, 수확체험 외에 팜파티 등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김 대표는 “샐터농장에 20대 젊음을 송두리째 바쳤다. 지난 10년 넘게 흘린 땀과 노력,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농장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하트사과’, ‘하트병 사과’ 등 차별화된 대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청년농부 팜핑으로 가치창조 농업 실천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 생산 · 가공 · 체험 연계 부가가치 제고 -

- 목포에서 배로 20분정도 들어가야 하는 섬, 신안군 자은도, 이곳에서는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체험과 캠핑을 접목한 농장운영으로 돈 버는 농촌사업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다.
- 주인공은 '청푸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우(34) 대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해에 귀경하여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던 그가 농사에 뛰어들게 된 동기는 2008년 농협에 근무하게 되면서였다. 경제 사업을 담당하면서 농사를 알게 되었고,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5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12년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었다.
- 김대표의 농업창업 아이템은 농장체험과 캠핑을 엮은 '팜핑'이다.
- 섬 자원을 활용하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치고 힘든 도시 소비자들이 잠시 여유로움을 느끼고, 텃밭에서 먹을 것을 준비 해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캠핑도 즐기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그는 '나무늘보'라는 팬션을 운영하면서 땅콩·고구마·옥수수·배추·무 등 직접 재배한 작물 수확을 체험과 연계하고, 섬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물낚시 체험, 조개캐기 체험, 불게잡이 체험, 고동 소리잡기 체험, 자전거 투어, 바다낚시, 두봉산 산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2014년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창업지원 사업으로 '싱싱하고 푸르다'는 의미의 농장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풍을 맞고 자란 콩과 고추 그리고 3년 이상 숙성한 명품 천일염만을 사용하여 된장 등 전통 저염장류 제품 5종을 개발하였다.



- 청푸름 농장에서 금년에 유치한 고객은 2,000여명, 팬션운영 매출액 45백만원에 농산물 판매 매출액 30백만원 등 총 86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59백만원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 김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한번 방문했던 고객이 따뜻한 정을 느껴 다시 방문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며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낙후된 자운도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지역의 취업시책을 활용하면 길이 보인다. 수도권이 좋겠다는 생각은 이제 지워라!

취업자	정차희(24세, 여, 고졸)
취업기업	땅끝황토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근로자수 11명
업무내용	사무업무

- 저는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렸을 적부터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커가면서 목표는 점점 뚜렷해 졌고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좀 더 쉽고 많이 생산 할 수 있을까 고민 하였고 그러던 중 해남에 있는 지금의 회사 ‘땅끝황토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알게 된 ‘땅끝황토친환경 영농조합법인’회사는 품질 좋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도와주고 유통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 해남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곳이라 의미가 남달랐고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하며 해남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가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 신규채용이 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다니는 곳은 말로만 듣던 가족 같은 회사였습니다. 직원분들은 모든 사소한 것들 까지도 미리 챙겨 주셨습니다. 농사에 관심은 많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에게 직원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소한 것도 즐거웠습니다.
- 시골에서만 자라 학생 때는 도시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일자리도 많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도시로 많이 올라가고 싶어했고, 올라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올라간 친구들은 다시 내려오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도 청년인턴사업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로만 올라가야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 사례와 더불어 지역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취업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 출처 : 전라남도

10. 정책 동향

◆ 농식품부 -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보장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추진계획을 확정('16.1.27.)

< 2016년 농업재해보험 상품개선 내용 >

- ◆ 보험대상 품목 확대(4개), 뚝은감 종합위험보장 시범도입 추가, 전국사업 확대(4개) 등 보장범위 확대
- ◆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상품 도입(벼, 시범), 벼 미이양보장상품 도입, 가입금액의 85%·90% 보장형 상품 확대('15:12품목 → '16:20), 보험료 할인·할증 개선(△25%~+40 → △30~+30) 등
- ◆ 가축의 경우 보험사업자 확대, 가입기준 완화, 폐사처리비용 보장 상품 개발 등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5년 46개 → '16년 50개

* 신규 도입품목 : 양배추·밀·오미자·미나리(시설)

-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 중인 과수에 '뚝은감' 추가 및 사업지역 확대**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

** 배 : 30개 시·군 → 전국 / 단감 : 12개 → 30 / 사과 3개 → 12 / 뚝은감 : 신규 3개 시·군

-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제도 도입 : 벼(시범)

* 재해 피해 없이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벼 가뭄피해에 대비한 '벼 미이양보장상품' 판매(4월초)

○ 보험 보장비율 지속 확대* 및 보험료 할인·할증 개선

* 가입금액 80% 한도 보장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85% 또는 90%(15% 또는 10%)까지 확대
: ('15) 벼포도마늘대추 등 12품목 → ('16) 뽕은감·단감·감굴·복숭아·양파 20품목

<가축재해보험>

○ 보험사업자 확대·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 개선으로 가입농가 확대 등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

* ('15) 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움 → ('16) 한화손해보험 추가

*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등 가축 폐사 시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

※ 렌더링 : 가축 도축 후 남은 부산물에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가축 재처리 과정

○ 가축재해보험 사기의 원천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지속 추진

*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매분기)를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전 도축확인, 현장사진 확보 등 지급심사 강화

□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품개선 협의회(연 40회 이상)를 실시하여 농가·전문가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손해평가사를 통한 피해 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벼 재배면적 3만ha 줄여 쌀 수급안정 피해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유관기관단체 간 소통·협업을 통해 금년도 식량산업 목표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조기 확산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2106. 식량산업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워크숍 개최는 지난해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하여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 아울러, 타 작목 재배시에도 소득보장(수매제도 활용, 수입보험 등), 작업 편의성(기계화, 배수시설 등), 수확후 인프라(DSC, SPC 등), 안정적 판로 등 여건 조성 및 홍보를 통해 쌀 이외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이날 행사는 이동필 장관의 ‘농식품 정책방향’ 특강을 시작으로 ‘2016. 식량산업 정책추진 방안’, ‘벼 생산비 절감 방안’, ‘논 타작물 작부체계 소득분석’, ‘우수사례 및 금년도 기술지원 추진방향’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한편, 국산밀 산업협회, 국산콩 생산자연협회, 고구마 산업중앙연합회 등 밭작물 육성 관련 생산자 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과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논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중앙, 시도, 시군)하여 2월부터 대체작목 작부체계 제공, 종자보급,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 아울러, 금년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종자공급은 물론, 재배 면적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여 농협 및 기존 사용업체 등을 통해 실수요량을 확보하는 한편,
- 농식품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동필 장관은 이날 워크숍 행사에 참석한 일선 농정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하여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T가 청년창업의 “꽃”을 피워드립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최근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에 부응하고자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의지가 가득한 화훼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찾아 나선다.
- 최근 화훼산업은 지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 회원수는 1만 6천여 개로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는 등 소비부분에서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기이다. 이에 aT는 기존의 꽃집과는 차별화된 신개념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청년창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내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하였다.



- 임대 공간 뿐 아니라, 무료 시설설치를 통해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초보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매칭과 같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aT 김재수 사장은 “젊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한 스타기업의 탄생을 기대한다”며, “1차적으로 화훼분야에서 청년창업가를 발굴한 후에 농수산물식품 타 분야로 확대하여 aT센터를 농식품 관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고 싶은 청년들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오는 2월 15일까지 aT화훼공판장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훼공판장 홈페이지 (yfmc.at.or.kr)를 참고하거나 화훼공판장 관리부(현정혜 대리, 02-570-1824)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남도 폭설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원액 확정...민관군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

- 전라남도가 지난 23~25일 내린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관군을 총동원하고, 피해 농가 등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폭설 기간 동안 전남에선 나주 36cm를 비롯해 장성·영암 등에서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장성군 등 11개 시군에서 386개 동의 비닐하우스 18ha가 반파 또는 전파됐다. 또 함평 등 5개 군에서 축사 72개 동이 파손돼 약 44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6일까지 장성 남면에 공무원, 경찰, 군인 등 120여 명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20여 동의 눈 쓸어내기를 하는 등 도내에서 4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복구 완료 시까지 일손 돕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특히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에서 일반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의 경우 1천㎡당 794만원을,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1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딸기 등 과채류 기준으로 1천㎡당 종자 대파대 39만 5천원을 지원한다.
- 양돈축사는 330㎡당 5천 400만원을, 오리 등 간이축사는 1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폐사한 양돈의 경우 마리당 13만 9천원을, 한우는 마리당 156만원의 입식비를 지원해 피해농가의 시름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군 가용 인력을 동원해 눈 쓸어내기, 피해 시설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업인도 빠른 시일 내에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 쓸어주기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에서는 또 이번 폭설로 목포시 온금동 아리랑 고개와 지방도 865호선 구례 효곡~매제 간 3.0km와 곡성 고달~구례 산동 간 군도 12.4km, 목포 유달산·부주산 일주도로 등 4개소 7.1km가 통제됐으나 군인과 의경, 공무원 2천 311명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선 결과 26일 오후 모든 도로가 재개통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최근 한파·폭설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배추·무·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제주 등에 주말 많은 눈이 내리며, 주요 채소류에 대한 한파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대설경보/주의보 : 전남(9)·광주·제주산간/ 전남(6)·제주산간

* 한파경보/주의보 : 서울·인천·세종·경기·강원(18)·충북(8)·충남(3)·경북(11) / 부산·대구·인천(옹진)·광주·대전·울산·강원(6)·충남(계룡·청양·천안 제외)·충북(3)·전북·전남·경북(12)·경남·제주

□ 한파와 폭설로 인해 산지 수확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상·항공 운항 중단(제주) 등 운송여건의 악화로 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작업도 정상화되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 해남·진도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배추·대파는 폭설로 수확 작업이 어려워 금주까지 출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 무·당근·브로콜리·쪽파 등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공급되는 품목은 중단되었던 해상·항공 운송이 25일 오후부터 재개되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15년산 저장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양파·마늘은 일부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나, 시장공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기온이 회복되고, 포전의 눈이 정리되어 배추·무·대파·당근 등 주요 채소류의 출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비축물량(배추 2천톤, 무 6.5천톤)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고,
- 농협 계약재배 물량* 및 생산안정제(배추 1만톤) 물량의 출하 조절을 통해 한파로 인한 출하량 부족 뿐 아니라, 기상회복과 함께 출하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배추 36,571톤, 무 46,185톤, 대파 2,728톤, 당근 10,894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냉해 피해 등 생육 모니터링 및 산지가격, 시장출하량 등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수급 대책을 통해 겨울철 채소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1. 해외 농업정보

◆ 네덜란드, 낙농조합 우유생산 쿼터 유지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낙농조합인 Frieslandcampina는 낙농가들의 우유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농가당 쿼터를 유지하거나 감축하는 낙농가는 우유 생산량 100kg당 2유로의 특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유럽 각국에 2만 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이 낙농조합은 지난해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 쿼터제 철폐이후 우유 생산을 늘리는 낙농가들을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음.
- 실제로 이 지원책 이행 시 농가는 5%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 동안 Frieslandcampina는 중국의 분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유가공장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우유 생산량이 수요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러시아의 유제품 금수조치(embargo), 유럽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지난해에는 유제품 가격이 30% 폭락하여 많은 조합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네덜란드 낙농가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EU의 쿼터제 폐지는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비판함
- 쿼터제 폐지로 낙농가들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여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우유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 비싼 외식 대신 요리재료 세트로 가정 조리 인기

-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브라질 소비자들은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늘고 있음. 이에 가정용 요리재료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음.
- 브라질 외식협회(Abrasel)는 2015년 상반기 브라질 외식부문의 매출액이 8.3%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 Abrasel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경우 음식 값은 물론 별도로 소요되는 주차비·주유비·점원에게 줘야할 팁 등을 모두 외식비 부담으로 느껴 외식을 꺼리고 있다”라고 분석함.
- 이러한 소비 추세에 역대부농하여 일부 업체들은 가정용 요리재료 세트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음.
- 가정용 요리재료 세트 상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Arte Gourmet사는 2013년 ‘당신이 셰프’라는 요리세트 상품을 출시함.
- 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6가지 메인요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는 세트에는 선택한 요리에 필요한 모든 식재료가 필요한 분량만큼 계량돼 담겨져 있어 매우 편리하며 식재료 손질 방법, 단계별 조리법 등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 이에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음.



- 또한 Arte Gourmet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브라질리아와 고이아니아 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heftime은 Arte Gourmet와 유사한 요리재료 세트 배달업체로, 회원제로 운영됨.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유명 셰프가 개발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 세트를 배달 받게 됨.
- 이러한 요리재료 세트는 레스토랑 가격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뉴욕,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 꾸준히 증가 중

- 온라인 쇼핑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식료품 시장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문 조사에 따르면 54%의 응답자들이 최근 12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횟수가 평균 29% 늘어났다고 답한 반면에 같은 기간에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4%를 밀돌았고, 42%는 최근 12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빈도가 이전의 기간과 대동소이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매주 식료품을 쇼핑할 때 평균적으로 전체 구입횟수의 19%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매주 식료품을 구입할 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단 한곳의 매장에서 매주 필요로 하는 일체의 식료품을 구입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13%에 불과했을 정도라고 설문 조사에서 답했다.
- 한 매체는 “식료품 온라인 판매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가운데 2016년에는 그 증가세가 급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식료품 시장 매출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실제로 월마트, 페어웨이 등 대형 식료품 소매점들이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오프라인 식료품 소매점이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식품낭비, 소비조장 등의 오명을 방지하기 위해 다채로운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슈퍼마켓 체인 H-E-B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웹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Hy-Vee도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다.
-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인스타카트(Instacart) 같은 배달 전문 앱과 협력해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어 투 도어 오가닉스社의 채드 아놀드 회장은 “필요로 하는 일체의 식료품을 단일매장(one-stop-shop)에서 구입하기가 소비자들에게 갈수록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편리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일상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키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 그로서리스토리즈는 이밖에 “식료품점의 디지털화, 엔터테인먼트 및 식사 공간 제공 등 식료품 소매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시사점

-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구입할 때 만져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을 보는 등 감각을 총동원해 구입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온라인 식료품 매장과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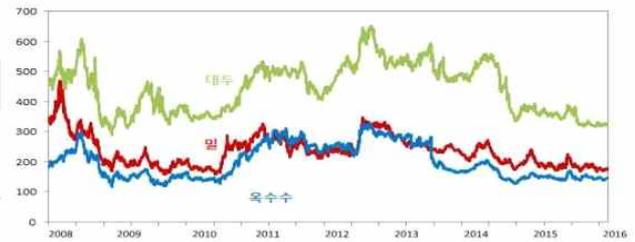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2. 01.(시카고 선물거래소)

염가 매입세에 곡물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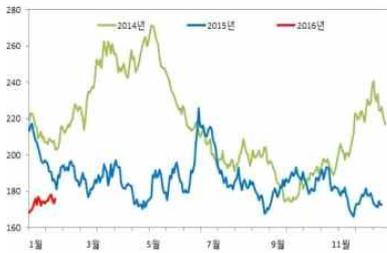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1.29)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2)	2015 평균
밀	176.07	▲1.5%	174	186
옥수수	146.45	▲1.8%	145	148
대두	3242.15	▲1.7%	323	347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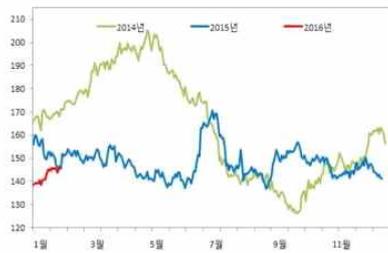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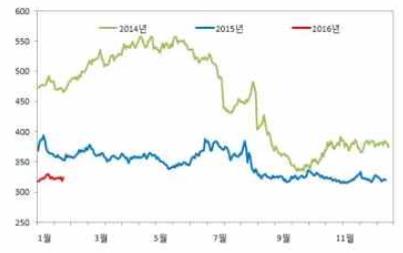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장중 혼조세를 보이던 염가 매입세로 상승 마감함. 그러나 러시아의 밀 수출 관세 변동 가능성과 다음 주 미국 남부 평원 스노우스톰의 예보는 미국 밀 생산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승세 지속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연질밀 재고량을 지난 달 1,760만 톤에서 1,580만 톤으로 감축 전망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하락한 가격에 매입세가 물리며 상승 마감함. 아울러 최근 아르헨티나 곡물 지대 건조한 기후가 포착되고 있음. USDA는 1/21일자 수출 판매에 대해 재고분 817,000톤과 핵옥수수 38,400톤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망치인 80~100만톤 수준이라고 전망.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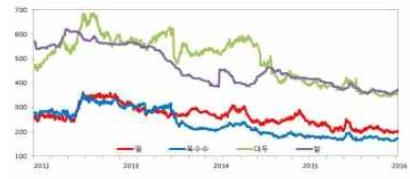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취소되며 3주래 최저가격을 기록하였으나, 월말 염가 매입세가 물리며 회복함. 그러나 남미의 풍작 전망은 대두가격 상승세 유지에 제한요소로 지속적으로 꼽히고 있음. 주간 대두 수출 판매는 647,800톤으로 전망치인 50~80만톤 수준이라고 USDA는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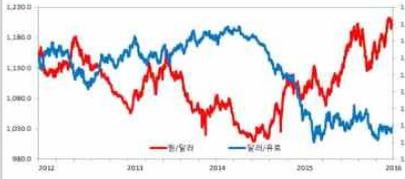
관련동향

- 수요 부진과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남미산 핫대두 구입 선호로 대두가격 하락
-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간 감소 공조 기대감, 주요국 증시 상승, 미 원유 생산량 감소 및 미 원유 시추기 감소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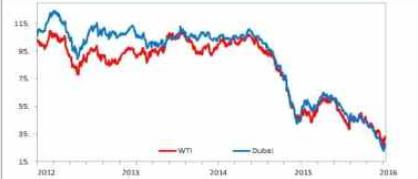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옥수수	172	▼0.6%		달러/유로	1.0941	▲0.4%
	대두	349	▼1.7%	국제유가 (US\$/B)	WTI	33.62	▲1.2%
	쌀	375	▲0.3%		Dubai	28.37	▲4.8%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주 2) 기준일은 '16.1.28(수출가격), '16.1.29(환율), '16.1.2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하세요

- 올해 150억 원 규모 2월 5일까지 접수...1% 저리 용자 -

- 전라남도는 친환경 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녹색 축산 육성기금 150억원을 1% 저리로 용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등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축산 기술 개발업자 등이다. 또한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 사업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2~3월께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올해는 ▲용자 한도액을 최고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 ▲축산 기술개발 사업자 용자 지원 한도 20억원 신설 ▲전업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용자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년도까지 연장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대도시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30억원까지 지원한다.

- 이에 따라 융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축산기술 개발업자 20억원, 축산물 유통업체 30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 유통업체·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과 생산비 절감만이 FTA 시장 개방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인만큼 앞으로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녹색축산 사업 의지가 높고 관심 있는 축산농가와 법인, 업체 등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녹색 축산 육성기금은 전라남도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한 것으로, 현재 조성액은 739억원이며, 184농가에 34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군·읍·면·동서 접수 -
- 전라남도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비롯한 밭농업 조건불리 등 3개 직불제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 특히 밭농업 직불제는 고정 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사료작물과 보리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값 하락으로부터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모든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ha당 4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와 식량작물을 재배한 경우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동계하계 작물 26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원과 밭고정 25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읍면동에 문의해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전남에서는 28만 여 농가에 쌀고정 직불금 1천 756억원과 밭농업 직불금 367억원 등 총 2천 206억원이 지급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전라남도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시설원예의 작물 생산성·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전문가 컨설팅, 시공 등에 약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 개보수 후 9~10월에 '17년 수확을 위한 파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사업 신청 적기인 것이다.
- '14년도에 시작되어 3년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온실내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내용 : 내·외부 환경센서(온도, 습도, CO₂ , 일사량 등), 적외선 카메라 등 영상장비, 각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육정보 DB 분석시스템 등
 - 지원조건 :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
 - 신청기간 : 연중(2월 말 1차 사업자 선정)
- ICT 보급 초기단계에 농업인에게 ICT 시설장비가 생소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단계별 3단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 1단계에는 ICT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작물·온실형태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을 선택한다.
- 2단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ICT 융복합 시설이 설치되는지 계약 및 설치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 시설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한다.



-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각 시·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초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월 말에 1차 사업자를 확정한다.
- 연중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1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관련 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 시설원예 현대화(온실 내 시설 설치 지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및 냉·난방 시설 지원)
- 농식품부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할 경우 ▲ 생육정보·환경 분석으로 최적 온실환경 조성, ▲생산성·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노동력 투입 감소로 농작업 편의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성공사례가 확산되면서 ICT 시설 도입에 대한 농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파종할 콩 보급종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 이번에 공급할 콩 보급종은 모두 6품종 1,241톤으로 장류 및 두부용 콩인 대원 728톤, 태광 210톤, 대풍 30톤, 우람 81톤, 연풍 5톤 및 나물콩 재배용인 풍산나물 187톤이다.

- 콩 정부 보급종은 소독처리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재배 등을 목적으로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인증 관련자료를 종자원 관할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 금년도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17,820원(5kg/1포대)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 아울러 종자원은 벼 보급종 잔여물량 9품종, 1,011톤을 2월 1일부터 벼 육묘기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품종은 오대 45톤, 운광 86톤, 칠보 30톤, 미품 47톤, 수광 70톤, 영호진미 77톤, 새누리 116톤, 황금누리 184톤, 새일미 356톤 등 1,011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기타 품종특성, 재배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 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www.seed.go.kr)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립축산식품부

◆ 스마트폰으로 농업 새 기술을 배워보자

- 보고 듣고 만들어 공유하는 ‘농업 기술 동영상’ 인기 -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초보 농업인과 귀농인이 늘면서 언제든 쉽게 검색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기술 동영상 33편을 추가로 제작해 제공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작물 재배 관리, 텃밭 가꾸기, 농산물 가공 등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농업 기술 동영상을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모바일 웹사이트(m.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농업 기술 동영상은 전체 600여 편으로, 한 편당 5분 정도이며, 궁금한 점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각 기관의 담당자를 안내하고 있어 상담도 가능하다.
- 최근 제작한 동영상으로는 ‘쌀 이렇게 좋아요’, ‘실내 정원 물 관리하기’, ‘발효햄 만들기’, ‘벼 종자 소독과 육묘 기술’,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목 생산 기술’, ‘돌발해충 방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생육 조사 방법’ 등 33편이 있다.
- 또한, 동영상을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주제에 맞게 재가공하거나 공유하기 쉽도록 클립영상도 제공한다. 즉, 5분짜리 기술동영상을 ‘오미자 재배 적지’, ‘오미자 심기’, ‘경단 만들기’, ‘여주산병 만들기’처럼 소주제로 나눠 짧은 동영상 형태로 총 2,713편을 이용할 수 있다.
- 이는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자료와 편집해 사용하기 편리하며, 초등학생과 자유학기 참여 학생, 청년층, 전문가들의 체험이나 자료 제작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자가 개인 카페 자료실이나 교육 및 편집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김미희 농업연구관은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관련 기술 동영상을 보며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라며, “정부3.0 실천을 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은 물론, 영농 현장의 수요가 많은 새 품종과 최신 재배 관리 기술 동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다음 주 농업정보는 설 연휴로 인하여 휴간 합니다 !



주간

전남농업정보 7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